

위성미 다섯번째 PGA 출전

“이번엔 꼭 컷 통과”

“천만달라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미루고 미뤘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첫 통과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위성미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파71·6천762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존디어클래식에 출전한다.

지난 2004년 소니오픈에서 PGA투어 대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다섯 번째 PGA투어 대회 출전이다.

4전5기에 나서는 위성미는 “이번에는 꼭 컷 통과를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에 넘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딱 1타가 모자라 컷오프를 당했던 미셀 위는 작년에 비해 쇼트게임이나 퍼팅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기에 작년에 모자랐던 1%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

첫날 1언더파 70타로 공동 73위에 올라 컷 통과 가능성을 높였지만 2라운드에서 14번째 홀(5번홀)까지 컷 기준타수보다 2타나 앞서기도 했지만 15번째 홀(6번홀) 더블보기에 이어 16번째 홀(7번홀) 보기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지난해 대회 때 위성미의 실패 원인은 6번홀 6m 거리에서 저지른 3퍼트와 타샷 실수를 만회하지 못한 7번홀 쇼트게임이었다.

“단 2개 홀에서 모든 경기를 망친 셈”이라고 털어놓은 위성미는 퍼팅과 쇼트게임이 달라진 만큼 두 번 실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일 열리는 존디어 클래식 참가

“퍼팅 향상... 부족한 1% 채웠죠”

더구나 위성미는 지난 5월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당당하게 남자 프로 선수들과 겨루 컷 통과를 이뤄냈기에 PGA 투어 컷 통과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

이와 함께 존디어클래식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 1주 전에 열리는 탓에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불참하는 것도 미셀 위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는 올해 PGA 투어 상금랭킹 50위 이내 선수가 고작 9명 뿐이다. 10위 이내 선수는 단 1명도 없고 20위 이내 선수라야 잭 존슨(미국,17위) 1명에 불과해 그에게는 비교적 ‘만만한 무대’이다. 하지만 1945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어떤 여자 선수도 넘지 못했던 여성 선수의 PGA 투어 컷 통과라는 위업을 이뤄내기 위해 위성미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비록 하위 랭커들로 채워졌지만 PGA 투어 선수들의 수준은 분명 위성미가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

장타력이 ‘트레이드마크’인 위성미지만 러프가 깊고 페어웨이가 좁은 PGA 투어대회에서는 평균 비거리가 270야드 안팎에 그쳐 그린 공략이 수월하지 않았다.

PGA 투어에서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바닥권인 프레드 펄크(270야드), 로버트 가메스(273야드) 등과 비슷한 수준.

하지만 펄크와 가메스가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데서 보듯 장타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위성미는 PGA 투어 선수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위기를 무마하는 쇼트게임 능력과 압박감 속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퍼트를 성공시키는 집중력에서 취약했다는 분석이다.

“실패하면서 배웠고 배운 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늘 말하는 위성미가 작년의 실패와 올해 SK텔레콤오픈에서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61년만에 PGA 투어에서 컷을 통과하는 여성 선수가 될 지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리는 시즌 2승 사냥에...

내일 LPGA 코닝클래식 출전

부활한 ‘골프여왕’ 박세리(29·CJ)가 오하이오에서 시즌 두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0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은 박세리의 ‘뒤틀발’이다.

신인이던 1998년 이 대회를 제패한 박세리는 지난 해까지 여덟차례 출전해서 4개 우승컵을 수집하고 준우승 1차례를 포함해 7차례나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공동 36위에 머문 것이 ‘옥에 티’이지만 극심한 슬럼프에 허덕이던 와중에 거둔 성적일 뿐이다.

특히 박세리는 이 곳에서 18홀 최소타(61타), 72홀 최소타(261타) 등 훌륭한 기록을 쏟아냈고 1998년 2라운드 때 친 61타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대회 코스레

코드로 남아있다. 때문에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우승으로 부활을 알린 박세리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등장했다.

현재 상금 56만 달러로 13위에 올라 있는 박세리는 2004년과 작년 등 2년동안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루지 못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에 디담돌을 삼켰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박세리가 우승을 장담하기에는 경쟁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사기가 오른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미현(29·CJ), 한희원(28·힐라코리아), 장정(26·기업은행), 이미나(25·KTF), 이선화(20·CJ), 박희정(25·CJ) 등 LPGA 투어를 완전히 장악한 한국 선수들도 일제히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자가 나오면 지금까지 시즌 최다승을 올렸던 2002년 시즌 9승과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극전사들 보러가세”

FA컵 16강전 오늘 개막

출발 11년만에 ‘연중 대회’로 변신하고 상금 및 지원금 규모도 대폭 인상된 2006 하나은행 FA컵(축구협회컵) 전국선수권대회 16강전이 오는 12일 오후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린다.

서울에서는 박주영과 함께 ‘꽃미남’ 백지훈이 출격하며, 수원 삼성의 이운재와 김남일, 송종국, 조원희는 대전 시티즌과 홈 경기에서 국내 그라운드에서 복귀한다.

독일월드컵에서 후보 골키퍼로 벤치만 지켰던 김영광(전남)은 광양에서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에서 주전 수문장으로 나서고, 지난 5일

과 8일 이미 K-리그 복귀전을 치른 대표팀 만형 최진철(전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인천 유나이티드전에 출격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아마추어들이 32강전 때처럼 프로팀을 잡는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밖에 N-리그나 대학팀 등 아마추어들이 32강전 때처럼 프로팀을 잡는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16강전에서는 아마추어 3개팀이 프로팀을 쓰러뜨리기 위해 출격한다.

32강전에서 ‘호화군단’ 성남 일화 FC를 승부차기 끝에 꺾은 페기의 중앙대는 이번엔 대구FC를 상대로 8강행을 노린다.

역시 울산 현대를 승부차기 끝에 잡고 16강에 오른 고양국민은행은 광주 상무를 홈으로 불러들여 아마팀 반란을 이어갈 기세며, 작년 대회 4강팀 인천한국철도는 창원에서 프로 축구 14호 구단 경남FC와 대결한다.

지난해 FA컵 준우승을 거두며 아마팀 반란의 주역으로 떠오른 울산미포조선도 홈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승부차기로 꺾고 16강에 오른 호남대와 격돌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볼링 동호인 한자리에...

‘벨인퍼컴 사장배’ 49일 대장정 돌입  
예선서 108명 선발...내달 27일 결승

광주·전남 아마추어볼러들의 큰 잔치인 제3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 볼링대회가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테네플링장에서 예선 첫 경기를 시작으로 4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는 광주·전남 볼링협회 주관, 광주일보사와 광주MBC문화방송이 후원하는 순수 아마추어 볼링대회로 1~2회 대회를 치르면서 광주·전남 아마추어 볼링동호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대회는 지난 10일~ 8월 26일까지 광주(테네플, 하남, 연아, 염주, 시티볼링장)·전남(목포 국제, 순천퍼펙트, 곡성 심청, 나주 ABC볼링장)의 지정된 경기장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 통과자 108명을 선발해 준결승과 결승전을 실시한다. 예선전은 1조 4개팀이며 중복 출전이 가능하다. 55세 이상 참가자에게는 매 게임 핸디 7점이 적용된다.

준결승전은 8월 26일 광주 테네플링장에서 오전 10시 여자부, 오후 2시 남자부 경기가 치러진다. 경기방법은 4게임 합산 남·여 각 18명을 선발한다.

결승전은 8월 27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 테네플링장에서 결승 진출자 남녀 각 18명이 6게임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순위 결정전은 결승전 실시후 남·녀 각 1~4위까지 선발하고 파라마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1위에게는 트로피와 훈련보조금 150만원이 주어지며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4위 40만원, 5위 30만원, 6위에게는 20만원이 주어진다. 7~10위까지는 최고급 수입볼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테네플링장에서 열린 예선 첫 경기에는 남자 36명, 여자 15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남자부에서는 황정일(42·서구 화정동)씨가 4게임 합산 923점으로 1위, 2위 김경덕(34·서구 화정동), 3위 양기정(42·북구 두암동), 4위 김해선(33·담양군 객사리)씨가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김민희(44·광주시 북구 운암동)씨가 784점으로 1위, 2위 이미옥(44·남구 진원동)씨, 3위 전맹자(40·북구 용두동), 4위 김미자(46·북구 두암동)씨가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라마스 게임 (Paramas Game) = 예선을 거쳐서 본선 상위 몇 명을 선발한 후, 이 선수들을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스크래치 게임을 해서 승자가 상위 선수와 겨루는 방식이다.



광주일보사 후원 제3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가 10일 광주 북구 테네플링장 등 9곳에서 4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예선 첫날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릴리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